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5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IMF, 필리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 page 1-2
- PCCI, 정부 입법 계획에 대한 국정연설 언급 부재 지적 — page 2-3
- 필리핀 6월 무역적자 축소... 수출 26% 급증 - PSA — page 4
- 에너지부,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지침 담은 행정명령 발행 예정 — page 5
- 외국 상공회의소들, 관련 법안 이행 촉구 — page 5-6
- 2026년, 필리핀 고용주들 급여 예산 삭감 예정 — WTW — page 6-8
-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발표 — page 8-9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 page 10

IMF, 필리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July 30, 2025 | Lee Chipongian | Malaya Business Insight

Select Asean economies Real GDP growth

	2023	2024	Projections	
			2025	2026
Indonesia	5.0	5.0	4.8	4.8
Malaysia	3.5	5.1	4.5	4.0
Philippines	5.5	5.7	5.5	5.9
Thailand	2.0	2.5	2.0	1.7

Source: IMF

2025년 전망은 5.5%로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5.9%로 상향 조정했다고 2025년 7월 30일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필리핀의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IMF는 2025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5월에 방필했던 IMF 관계자들이 예측한 대로 5.5%로 유지했다. 당시에는 무역 관련 불확실성, 완화된 인플레이션, 글로벌 금융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IMF의 2025년 전망치는 정부 목표 범위인 5.56.5% 내에 있지만 하단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6년 IMF가 전망한 5.9% 성장률도 정부가 설정한 2026-2028년 목표치인 6~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전망은 2025년 4월에 발표된 이전 세계경제전망(WEO)과도 비교된다. 당시 WEO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 2026년에는 5.7%로 추정했었다.

2025년 5월, IMF 직원들이 연례 검토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2026년 성장 전망치는 5.8%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며, 내부적으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5.4%로 예상치(5.5~6.5%)를 하회한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024년의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5.7%였다.

필리핀-IMF 협의 결과

IMF는 2025년 5월 실시된 '필리핀 제4조 협의(IMF Article IV Consultation)'에서 필리핀 경제가 외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낮은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의 재정 정책 기조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 건전화 조치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정부가 세수 증대와 지출 개혁을 통해 재정 적자를 통제하고, 보다 유연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세계 개혁과 관련하여, 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효율성 제고, 세무 행정 개선,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2]

IMF, 필리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Cont. from page 1]

올해 6월 말 기준, 필리핀의 재정적자는 7,655억 페소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4.69% 증가했다.

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2조 2,600억 페소를 기록했으며, 총 지출은 3조 250억 페소로 9.49% 증가했다.

안정적인 신용 성장

한편 IMF는 필리핀의 은행 시스템이 꾸준한 신용 성장과 견고한 자본 및 유동성 완충 장치를 바탕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대출, 레버리지 비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신용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성장과 금융 안정성

IMF는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4월 전망치인 2.8%와 3%보다 높은 수치다.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아세안 5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2025년과 2026년 모두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성장률 4.6%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다만, 이번 7월 전망은 기존 4월 전망치(각각 4.0%와 3.9%)보다 높다.

IMF는 이번 세계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4월 대비 낮아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 약세를 보이는 미국 달러로 인한 금융 여건 개선, 일부 주요 국가의 재정 확대를 들었다.

다만 IMF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도 함께 언급했다. 여기에는 관세율 인상이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그리고 높은 재정적자가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 여건 긴축으로 이어질 위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역 협상이 관세 인하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정책은 긴장을 완화하고, 물가와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시급한 구조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신뢰,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imf-raises-philippines-2026-growth-forecast-to-5-9/>

PCCI, 정부 입법 계획에 대한 국정연설 언급 부재 지적

July 29,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Voice of Business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네 번째 국정연설(SONA)에서 정부의 입법 과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미뤄진 개혁 조치들을 정부가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PCCI의 에누니나 V. 망지오 회장은 화요일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장벽 제거, 비즈니스 절차 간소화, 정부 서비스의 현대화 등에 대한 진전 상황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들에게 주요한 애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PCCI에 따르면, 「기업활동 원활화법(Ease of Doing Business Law)」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주의적 절차가 문제로 남아 있으며, 정부 기관 간의 업무 중복, 디지털화의 더딘 진행, 높은 준수 비용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MSME)의 신용 및 기술 접근성 확대, 인공지능을 포함한 보다 발전된 기술 및 디지털 교육훈련을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3]

PCCI, 정부 입법 계획에 대한 국정연설 언급 부재 지적

[Cont. from page 2]

그러나 PCCI는 이번 국정연설(SONA)을 통해 대통령이 홍수 통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인프라 목표를 확고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망지오 회장은 또한 대통령이 입법자들에게 행정부 우선순위가 아닌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점과, 공공병원에서의 '제로 밸런스 빌링(zero-balance billing)' 제도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망지오 회장은 이번 국정연설이 교육, 인프라, 농업 등 핵심 이슈에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제는 이러한 의지를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 지속적인 정책 개혁, 그리고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상공회의소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필리핀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오랜 과제의 정책 개혁과 입법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협회(IBPAP)는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국정연설에서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여러 분야가 업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IBPAP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디지털 인프라, 기업활동 용이성, 투자자 신뢰 등은 업계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사항들이며, 이는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IBPAP는 정부, 민간 부문, 그리고 학계와 협력하여 이러한 우선과제들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 그리고 IT-BPM 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산업연맹(FPI)의 엘리자베스 리 회장은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 “잘 전달되었다”고 평가했다.

리 회장은 “대통령이 보다 광범위한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식량 안보, 홍수 문제, 전력 공급, 공공 보건, 교육과 같은 핵심 이슈에 집중한 결정은 전략적이며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분야들은 필리핀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과 희망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회복력 있는 국민과 노동력을 구축하려는 대통령의 목표를 뒷받침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에도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필리핀 상공회의소(GPCCI) 역시 대통령이 기업 활동의 용이성, 기술 개발, 그리고 기후 대응에 집중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GPCCI의 마리 앙토네트 마리아노 회장은 “이러한 분야는 독일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투자, 기술 협력, 그리고 경쟁력 있고 기후 회복력 있는 필리핀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공통된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녀는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중국계상공회의소연합회(FFCCCII)는 모든 정부 기관과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정기적이고 투명한 감사 및 성과 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FFCCCII의 빅터 림 회장은 이른바 ‘유령 프로젝트(ghost projects)’가 필리핀 국민들로부터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절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에서 “FFCCCII는 정부와 입법부가 심도 있는 체계적 반부패 개혁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강화된 제도, 방해받지 않는 투명성, 견고한 책임 추궁 체계, 처벌의 확실성, 그리고 법치의 확고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7/29/688354/pcci-flags-sona-silence-on-government-legislative-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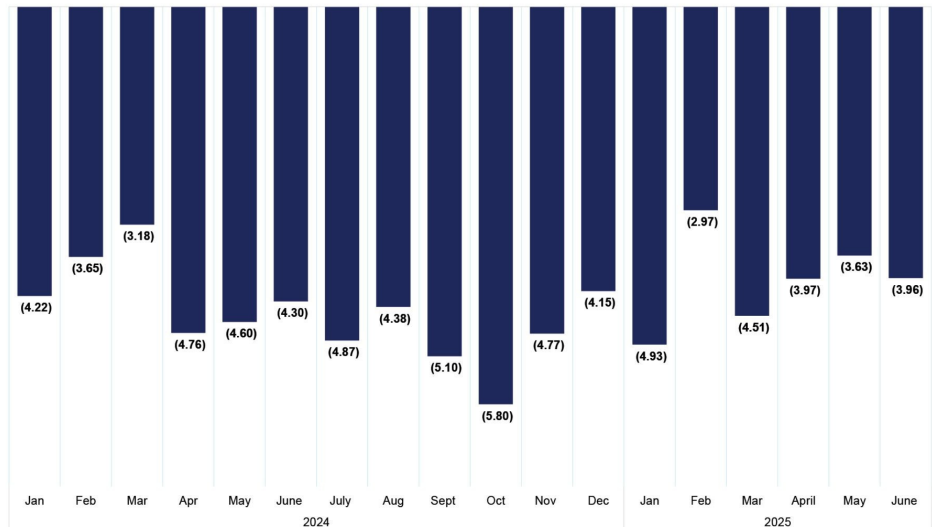
필리핀 6월 무역적자 축소... 수출 26% 급증 - PSA

July 31,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통계청 (PSA)은 2025년 6월 필리핀의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3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수요일 발표했다. 이는 수출이 급증한 반면, 수입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무역적자는 43억 3,000만 달러였다.

2025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55억 6,000만 달러에서 26.1% 급증해 7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99억 달러에서 10.8% 증가해 109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달 전체 상품 교역액은 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며, 2024년 6월 기록된 11.1% 감소세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전자제품, 여전히 최대 수출 품목

필리핀의 최대 수출 품목은 여전히 전자제품으로, 수출액은 38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 뒤를 광물 제품(4억 9,100만 달러), 기타 제품(3억 6,100만 달러), 기계 및 운송장비(3억 300만 달러), 차량·항공기·선박 등에 사용되는 배선세트(2억 1,400만 달러)가 이었다.

전체 수출의 약 79%는 제조품이 차지했다.

미국, 최대 수출 시장 유지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 지위를 유지했으며, 12억 1,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은 상위 5대 수출 대상국은 홍콩(10억 7,000만 달러), 일본(9억 7,500만 달러), 중국(7억 3,400만 달러), 싱가포르(3억 1,200만 달러) 순이었다.

수입도 전자제품이 1위

수입 부문에서도 전자제품이 1위로, 2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뒤를 광물 연료 및 운환유(14억 달러), 운송 장비(13억 2,000만 달러)가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자본재가 37억 1,000만 달러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원자재 및 중간재가 36억 7,000만 달러(33.4%), 소비재가 21억 5,000만 달러(19.6%)로 뒤를 이었다.

중국, 최대 수입국 유지

중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31억 달러어치 상품을 공급했다.

그 외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8억 7,000만 달러), 한국(8억 5,300만 달러), 인도네시아(8억 4,000만 달러), 태국(6억 2,700만 달러)이 포함되었다.

상반기 무역적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무역적자는 239억 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250억 6,000만 달러보다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3.2% 증가해 41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6% 증가해 65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전쟁·중동 정세, 여전히 리스크

리잘상업은행(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파트는 6월 무역적자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좁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무역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역풍이 향후 수출입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및 기타 무역 장벽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과 투자, 경제성장의 전반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카파트는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의 성장세를 끌어내리고 수출과 수입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히 6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간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도 글로벌 무역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june-trade-deficit-narrows-as-exports-surge-26-psa/>

에너지부,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지침 담은 행정명령 발행 예정

July 31, 2025 | Gabriell Christel Galang | Manila Bulletin



에너지부(DOE)는 원자력 부문을 위한 행정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 원자력 에너지 규제청(Philippine Atomic Energy Regulatory Authority, PhilATOM)을 설립하는 법이 비준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2025년 국정연설(SONA)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샤론 가린 에너지부 장관은 DOE가 원자력 부문의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자문(advisory)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린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질문에 “시행세칙(IRR)은 에너지부가 아닌 PhilATOM이 담당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전문 분야”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DOE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지침(circular)을 발표할 것이며, 여기에는 전력망 연계(grid synchronization), 경쟁 입찰 절차(CSP)의 방식, 전력 구매 방식(offtake)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린 장관은 또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장관이 되기 전, 가린은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정부간 위원회(NEP-IAC)의 수장을 맡았다. DOE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적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및 법적 체계를 개발하며, 원자력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직 PhilATOM이 시행세칙(IRR) 초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DOE는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관련 정부 부처의 참여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린 장관은 “필리핀의 원자력 에너지 진입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예산관리부(DBM), 재무부(DOF)와의 논의를 통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는 DOE나 필리핀 원자력연구소(PNRI)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hilATOM 설립과 관련해 산하 기관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린 장관은 국가전력공급청(NEA)과 전력자산부채관리공사(PSALM)가 이미 검토 대상으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에는 203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PhilATOM의 출범이 곧바로 건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DOE 장관은 앞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PhilATOM은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원의 “평화적이고 안전하며 보안이 보장된” 활용을 감독하는 유일한 규제 기관이 될 것이다.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은 여전히 전력산업개혁법(EPIRA)의 적용을 받게 된다.

Source: <https://mb.com.ph/2025/07/31/doe-to-issue-circular-guiding-nuclear-power-plant-permitting>

외국 상공회의소들, 관련 법안 이행 촉구

July 31, 2025 | Michael Din Dela Cruz | The Manila Times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국정연설(SONA)에 대해 외국 상공회의소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The Manila Times®

필리핀 영국상공회의소(BCCP)의 크리스 넬슨(Chris Nelson) 회장은 수요일 《마닐라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들을 강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nt. page 6]

외국 상공회의소들, 관련 법안 이행 촉구

[Cont. from page 5]

“우리가 이번 국정연설에서 기대했던 것은 핵심 입법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법(E-Governance Act),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그리고 데이터 전송 개방 접근법(Open Access in Data Transmission Act), 즉 '코넥타동 피노이 법(Konektadong Pinoy Act)'이 포함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SONA(국정연설)을 앞두고, 영국상공회의소(BCCP)는 디지털 전환 촉진, 포용적 성장 강화, 투자자 신뢰 제고에 필수적인 법안으로 전자정부법,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전송 개방접근법(Konektadong Pinoy 법으로도 알려짐)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 임대법(Foreign Investors' Long-Term Lease Act)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BCCP의 크리스 벨슨 회장은 영국 상공회의소가 행정절차 간소화청(ARTA)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기업환경 개선 문제를 보다 강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ARTA 챔피언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며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방안은 환영할 일”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상공회의소(ECCP)도 수요일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기업 환경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필리핀의 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자는 오랜 요구를 다시 강조한다” 고 밝혔으며, “유럽 투자자들은 필리핀의 전략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고, 정부가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하다” 고 덧붙였다.

ECCP는 또한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조치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필리핀을 신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상공회의소는 SONA가 마르코스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에너지 안보, 교육 및 인적 자본, 농업, 물류, 보건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CCP는 “이러한 메시지는 ECCP의 각 분야 위원회가 장기간 추진해온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7/31/business/top-business/foreign-chambers-want-action-on-laws/2159078>

2026년, 필리핀 고용주들 급여 예산 삭감 예정 — WTW

July 31, 2025 | Adrian H. Halili | BusinessWorld



Commuters get off a train at a Light Rail Transit (LRT) Line 1 station.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필리핀 고용주들이 2026년 임금 예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임금 인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WTW가 밝혔다.

WTW의 ‘임금 예산 계획 조사 보고서(Salary Budget Planning Survey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 민간 기업들은 2026년 평균 중간값 기준으로 5.5%의 임금 인상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실제 평균 임금 인상률 5.3%보다는 약간 높지만, 2024년의 5.5%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 가운데 2026년 가장 높은 중간값 기준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인도(9%), 2위는 베트남(7%), 3위는 인도네시아(6.1%)였다.

WTW는 필리핀의 현지 고용주 34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47.8%가 2026년 임금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예상되는 경기 침체나 재정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3.5%는 비용 관리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WTW 필리핀 보상 데이터 인텔리전스 부문 리더인 샤타 케루빈(Chantal Querubin)은 성명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보상 배분 방식, 투자 우선순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보다 전략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도 더 넓은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7]

2026년, 필리핀 고용주들 급여 예산 삭감 예정 — WTW

[Cont. from page 6]

한편, WTW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고용주 중 단 14.3%만이 2026년 임금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고용주들은 보상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26.1%), 인력 시장의 긴장 상태(19.6%), 예상되는 재무 실적 개선(19.6%) 등을 꼽았다.

WTW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임금 검토를 실시한 고용주는 92.6%로, 2024년의 96.1%보다 다소 낮아졌다. 나머지 고용주들은 임금 검토 절차를 중단했거나(3.9%), 임금 협상을 연기했다(3.5%)고 응답했다.

WTW는 “이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데라살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에서 인적 자본 개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 교수 마리아 엘라 칼라오르-오픈라스(Maria Ella Calaor-Oplas)는 임금 인상이 줄어들면 민간 부문 근로자의 가계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라스 교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계의 총소득 수준은 증가했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1.6%, 2026년에는 3.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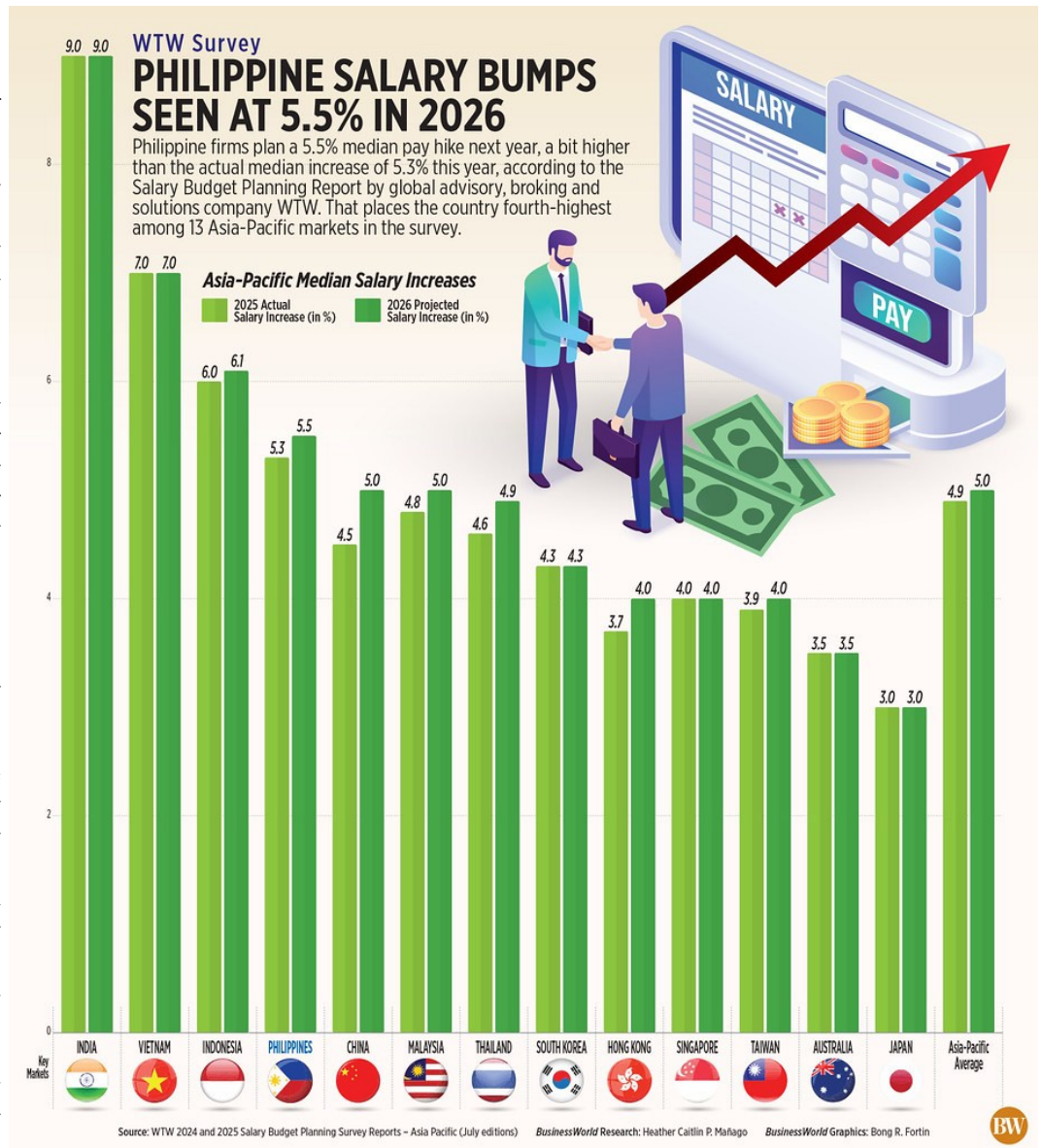
필리핀대학교 딜리만 캠퍼스 노동산업관계대학(UP Diliman School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의 벤자민 벨라스코(Benjamin Velasco) 조교수는 임금 인상이 부진할 경우 더 많은 필리핀인이 해외 취업을 모색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시지를 통해 “임금 정체는 더 나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취업이나 깃 워크(gig work)로 근로자들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 역시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후 일자리(climate jobs)와 같은 향상되고 혁신적인 공공 고용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는 최근 국가 녹색 일자리 인적자원개발계획(National Green Job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필리핀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Cont. page 8]



2026년, 필리핀 고용주들 급여 예산 삭감 예정 — WTW

[Cont. from page 7]

벨라스코 교수는 민간 부문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제화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회기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후, 노동계는 여전히 임금 인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스코 교수는 “최근 수도권(NCR)의 최저임금이 50페소 인상돼 7.8% 증가한 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5.5% 수준과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들의 예상 임금 조정 폭은 더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일 50페소 인상은 7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NCR의 일일 최저임금은 695페소로 인상됐다.

고용 인원 현황(Headcount)

한편, 인사 컨설팅 기업 WTW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내 기업의 76.9%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력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15.4%만이 직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7.7%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W의 케이트 케루빈(Kate Querubin) 이사는 “국내외 압력으로 형성된 오늘날의 필리핀 노동 시장에서 고용주는 급속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인력 유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에 따르면 필리핀 내 고용주의 57%는 인제 유지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WTW는 필리핀의 고용주들이 상승하는 운영 비용과 치열해지는 노동 시장 압력에 대응해 정기적인 임금 인상 외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54%는 모든 직원의 보상 체계를 검토 중이며, 49%는 특정 직원 그룹의 급여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또한 초봉 인상(44%), 리텐션 보너스와 일회성 포상(39%), 급여 범위 조정 강화(38%) 등의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WTW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인제 확보 및 직원 지원을 위한 보완 조치를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73%의 기업이 직원 경험 개선을, 62%는 교육 기회 확대를, 60%는 건강 및 복지 혜택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케루빈 이사는 “대규모 채용이나 예산 증액보다는, 기업들은 비용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역량 강화, 승계 계획, 내부 이동성, 직원 복지와 같은 장기적인 인제 전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인력 역량과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31/688566/phl-employers-to-cut-salary-budgets-in-2026-wtw/>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발표

July 31, 2025 | Agence France-Presse



A dealer walks past near the screens showing the foreign exchange rates at a dealing room of Hana Bank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June 18, 2025. (AP Photo/Lee Jin-man)

미국 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요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자축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의 관세율은 트럼프가 앞서 위협했던 25%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이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ont. page 9]

트럼프,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발표*[Cont. from page 8]*

“이번 금액은 향후 2주 이내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것” 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히며, 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대한 장애물 극복’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중대한 통상 과제”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수출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이 우리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주요 경쟁국들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한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의 수장으로서, 이번 무역 협정은 이 대통령 임기 초반의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제조업 부활을 꾀하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10%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8월 1일부터는 수십 개국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산 수입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인도산에는 25%, 브라질산 제품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녀사냥”이라 표현한 극우 동맹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 대한 보복 조치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8490/trump-says-us-to-impose-15-tariff-on-south-korean-goods>

Contact Us**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DR. ENRICO PARA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VISI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LEARN MORE
AND REGISTER NOW!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